▶▶ 매일 INDEX

2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전주매일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음 1월 10일) 제31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 관광기업 지원센터 개소
도 문광재단 운영기관에 참여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위해
구 전은 충경로 지점 리모델링
쇼핑 트래블라운지 시범 운영

30일 전라감영로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조오익 전라북도관광협회장, 관광벤처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전북도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또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정보는 물론 포토존, 굿즈 매장, 쉼터 등을 갖춘 쇼핑 트래블 라운지도 운영에 들어가 국내·외 외래 관광객들이 전북에서의 체류기간 연장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30일 전라감영로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조오익 전라북도관광협회장, 관광벤처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함께 성장'을 주제로 사업경과보고, 기업증서 전달,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 지원센터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1~2층(300평 규모)에 위치하고 있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비즈니스센터, 미디어 랩, 상담부스 등의 시설을 오픈오피스로 구축해 기업과 도민이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재단은 그동안 전북관광벤처기업 공모전을 통해 예비관광벤처기업 3개, 지역상생형 1개, 지역혁신형 6개를 선정해 사업화를 지원했다. 또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전통적 관광기업 컨설팅과 경영개선 및 품질 강화, 예비관광창업자 양성, 관광전문 인력 양성, 관광일자리 상담, 관광일자리 취업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번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전문성 확보와 사업효과를 제고 등 전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쇼핑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선정돼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전북은행 충경로 지점을 리모델링 한 뒤 쇼핑 트래블 라운지(약 72평 규모)를 시범 운영해 왔다.

전북 쇼핑 트래블 라운지는 14개 시·군의 관광안내와 정보 제공, 무료 짐 보관, 포토존, 굿즈 매장, 스마트 무료충전, 쉼터 운영 등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운지 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관광안내사가 상시 근무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북 관광산업이 힘든 시기를 겪었으나, 국제관광이 전면 재개되는 시점에 도내 관광산업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면서 "이번에 설립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계기로 입주공간 마련 및 사업화 지원, 교육·컨설팅 등 관광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

도교육청, 학생 확진자수 5주 연속 감소세에 따라
학교 · 학원서 차량 이용, 현장체험 버스 이용시 '의무'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년 여간 써왔던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최근 학생 확진자수가 5주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이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이 발표한 1월 중 교직원 포함 학생 확진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주차 154명, 3주차 90명, 4주차 52명 등으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방안으로는 먼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꼽았다. 이어 등교시 발열검사 실지 유지, 학교 방역활동자원봉사자 및 방역비 지원, 겨울철 재유행 대비 키트 배부,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등을 언급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설명한 실내 마스크 착용에 관한 세부기준안에는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건물을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나, 현장체험학습 관련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의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에서 단체 응원시, 입학·졸업식에서 애국가 제창시 등이다.

이 밖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등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이번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안내한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이외의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 구체적인 학교 방역지침은 새학기 시작 전에 안내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도민의 노래, '전북 아리랑'으로 재탄생

'국악의 본고장' 답게 광역지자체 최초 국악 활용 제작
소통의 날 행사에서 첫 선… 도 누리집 통해 음원 공개

전북도가 전북의 새로운 미래와 꿈을 향한 의지를 담은 도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발표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도민의 노래를 30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소통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도 누리집에 음원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노래 사용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친일잔재로 지적된 '도민의 노래(작사 김해강, 작곡 김동진)'의 사용을 중지하고, 2021년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새로운 도민의 노래 제작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민의 노래 '전북 아리랑'은 우리 민요 아리랑의 전통적인 선율을 비탕으로 지역 특색과 도민의 정서, 미래상을 고루 반영한 함축된 노랫말로 도민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국악을 활용해 도민의 노래 제작한 첫 사례로 '국악의 본고장' 전북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제정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완성도 높은 도민의 노래 제작을 위해 다양한 추진방식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관계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도내 출신 예술인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노래를 기증받아 새로운 도민의 노래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도내 출신 및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기증 대상곡을 찾던 중 도내 출신이며 현재 완주군 소양에서 거주하며 '풍류학교'를 운영 중인 저명한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이 작사·작곡한 '전라북도 아리랑(원곡명)'을 기증받았고 도민의 노래로서 적정성 논의와 의견수렴, 편곡(김백찬)·개사(임미성), 녹음 등을 거쳐 완성했다.

이와 함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연주와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방수미 명창의 시원한 음색이 곁들여지면서 진취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전북을 담은 새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김재훈 기자